

남성노인 성생활 실태 및 만족도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Male Elderly's Sexual Life and It's Satisfaction in Daegu Area

김한곤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Han-Gon Kim(hgkim@yu.ac.kr)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있다.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직접면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가운데 259개가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약 29%는 성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성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약 55%이었다. 연령, 배우자유무 그리고 가구형태 등의 변수들이 남성노인의 성생활지속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성관계횟수, 질병수, 그리고 성병경험여부 등의 변수들이 응답자들의 성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중심어 : | 성생활지속 | 성생활만족도 | 성관계횟수 | 성병경험여부 |

Abstract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lore the factors related to the elderly's sexual life continuance and satisfaction in Daegu a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st, 2017 to July 31st in 2018 by face-to-face interviews. 259 cases were used for the final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29% of the respondents continued their sexual life and approximately 55% of them were satisfaction in their sexual life. According to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age, having wife, and living with wife onl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 male elderly's sexual continuance. Frequency of sexual intercourse, number of disease, and the experience of venereal diseas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 elderly's sexual life satisfaction.

■ keyword : | Sexual Continuance | Sexual Life Satisfaction | Frequency of Sexual Intercourse | Experience of Venereal Disease |

1. 들어가는 말

1. 연구배경, 필요성 및 연구목적

생활수준 향상 및 의료수준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기대 여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2016년 현재 한국 남성

및 여성의 평균기대여명은 각각 78세와 84세로 보고 되고 있다. 그 결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역시 해마다 증가하여 2016년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3.2%에 해당하는 약 670 여만 명이 노인인구이다[1].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비율과 숫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

* 본 연구는 영남대학교 교비지원(과제번호 217A 380084)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8년 05월 28일

수정일자 : 2018년 06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6월 07일

교신저자 : 김한곤, e-mail : hgkim@yu.ac.kr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역할상실 그리고 소외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문제를 수반하게 되므로 만족할 만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노인들의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2]. 다양한 노인문제 가운데 오래된 관습과 선입견 등으로 인하여 간과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가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족스런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유지, 역할수행, 관계망 유지 등이 있으며 특히 성생활의 유지와 이성교제는 노후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3]. 노인의 성생활은 생활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성생활이 단절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인간의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생활은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로 노인의 성생활 실태에 대한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노인 역시 성욕구가 있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성행위 빈도는 감소하지만, 지속적 성생활이 유지되고 있다[6-9]. 성생활은 노년기에 맞게 되는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므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로 인하여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남성 노인은 여성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행위 빈도가 높으며 성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을 하는 남성 노인 가운데 약 45%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4]. 그 결과, 성교제 대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혹은 성행위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노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10].

한편, 2016년 현재 대구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2.9%로서 약 32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구지역은 경북지역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보수 성향은 노인들의 성생활면에서도 타 지역과는 차별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노인성생활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성생활 실태를 중심으로 성생활 만족도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보수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는 대구지역 남성노인들에 대한 성생활 실태나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는 현재까지는 수행된 바 없다. 성생활의 포괄적 개념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성생활의 다양한 분야 가운데 성행위 자체로 국한하여 남성노인들의 성생활 실태 및 성생활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성노인들의 성생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성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남성노인들의 성생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생활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성생활

성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차적인 기본 욕구이며 성생활은 삶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며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는데 기여하는 기본 인권이기도 하다[11][12]. 뿐만 아니라, 성생활이란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차원의 기본적 욕구이며 친밀한 교류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와 자아발전을 도모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인간의 성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은밀하고 친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가 가진 문화적 특성 때문에 성행동에 대한 규제가 다양하고 금기와 편견으로 인하여 학문적으로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14][15]. 우리나라에서는 이윤숙(1982)[16]의 연구를 시작으로 노인의 성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후반부터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들의 성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진주(1999)[17]는 노인들의 성에 대한 심층연구에서 노인들은 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성관계를 하고 싶어하며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희, 이창은(2000)[18]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성생활 빈도는 감소하지만 조사대상 노인들의 약 33%가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의 경우 남성 노인들의 약 67%, 그리고 여성노인의 약 39%가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노인들의 성생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는 건강과 주거환경 등이 있으며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성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20]. 젊은 시절에 비해 노년기에는 성행위 빈도가 감소하지만 노년기의 성생활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성생활을 통하여 삶의 활력소와 자신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4].

황은희, 신수진(2012)[21]은 노인의 성문화에 대한 일반적 관심이 높아진 계기는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매춘을 하는 ‘박카스 아줌마’라고 불리어지는 여성과의 성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부터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의 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인의 성범죄와 성병에 감염된 노인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들의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성에 대하여 폐쇄적이며 특히 대상자가 노인일 경우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에서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한편,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배우자 유무, 성지식과 태도, 교육수준, 스트레스 등이 있다[4][22].

2. 선행연구

노인성생활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성생활 만족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요인만이 아닌 배우자의 존재, 경제적 상태,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23]. 또한 성생활 만족도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24]. 뿐만 아니라, 김태현, 한혜선(1996)[25]에

따르면 노년기의 성생활은 서로의 삶에 대해 자신감을 주고, 연대감을 부여하며, 자기 효능감을 얻게 하는 등 정신적 만족감을 제공하고 고독감 해소와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희문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성생활 만족도에 의하면 남자 58.3%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여자는 41.7%가 만족한다고 답해 남자가 여자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 학력과 관련성에서는 고졸 이상이 중졸 이하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가 같이 살고 있을 때 성생활 만족도가 높으나, 경제적 상태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지현은 65세 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성생활 만족도는 성별, 교육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성인식과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27].

노인의 성생활 연구에 따르면 농촌 거주 노인보다 도시거주 노인이 성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이, 무배우자보다 유배우자 그리고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성생활에 더 만족한다고 보고되고 있다[8][13][24]. 김연, 유영주(2002)[28]의 연구는 성생활 만족도가 교육수준, 결혼상태, 수입정도, 배우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고 기혼이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Delamater, Sill(2005)[29]은 성파트너의 존재 유무가 노인의 성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한곤, 이희성(2013)[30]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약 30%는 성생활에 ‘만족’이라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약 70%는 ‘보통’과 ‘불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읍면지역 노인이 동지역 노인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남성노인의 성생활만족도가 여성노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여부, 운동시간, 여행경험, 자원봉사활동, 동호회, 친목단체 등의 변수는 노인들의 성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남자 노인의

성생활 및 성생활만족도에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및 건강관련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을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배우자유무, 최종학력, 가구형태 등이며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현재직업유무, 은퇴전 직종, 월평균소득 등이다. 건강관련 요인으로는 건강상태, 운동여부, 영양상태, 질병이환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성노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약 300명 내외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하여 훈련된 면담원을 통한 직접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석 달에 걸쳐 노인정, 달성공원, 두류공원, 경상감영공원 등을 방문하여 275부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가운데 부적절한 자료 16부를 제외한 259부가 최종적으로 통계분석에 활용되었다.

2.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2.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성생활 지속 유무와 성생활만족도이다. 성생활만족도는 “귀하께서는 현재의 성생활 전반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질문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① 매우 만족한다, ②만족하는 편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만족하지 않는다, 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등 다섯 가지 문항으로 나누어진다.

2.2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는 성생활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학, 사회경제적, 건강 관련 변수, 그리고 성관련 변수들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는 연령, 배우자유무, 최종학력, 가구형태 등 네 가지 변수이며 변수의 측정 수준은 다음과 같

다. 연령은 만으로 세는 역연령이며 가구형태는 독거, 부부, 기타 형태로 범주화되었다.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현재직업, 은퇴전 직종, 월평균 소득 등이며 현재 직업은 형제 경제활동 유무로 측정하였으며 은퇴전 직종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다.

건강관련 변수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규칙적 운동여부, 영양상태, 일상도움 필요도, 질병수 등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규칙적 운동여부, 영양상태, 일상도움 필요도 등은 리커트 5점 척도를 도입하였으며 질병수는 응답자의 질환이환 개수 이다.

성생활관련 변수로는 성병이환 경험유무, 성관계 대상, 성관계 대상 연령, 월평균 성관계횟수, 정보조기구 사용 유무, 성관계 장소 등이 도입되었다.

2.3 통계분석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성생활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실시하였으며 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20.0 for windows(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가운데 70대가 약 53%로서 가장 많으며 응답자들의 33.2%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등학교졸업 이하가 과반수를 넘었다.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약 50%는 부부만 거주하며 약 27%는 남성노인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이며 약 66%가 은퇴전에 비사무직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약 78%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으며 80%는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영양섭취 상태는 대부분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응답자의 약 20%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70%는 1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연령	69세 이하	93	35.9
	70~79세	137	52.9
	80세 이상	29	11.2
	합계	259	100.0
혼인 상태	배우자 없음	86	33.2
	배우자 있음	173	66.8
합계		259	10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36	52.5
	중학교 졸업	71	27.4
	고등학교 졸업 이상	52	20.1
합계		259	100.0
가구 형태	혼자 생활함	71	27.4
	노부부(돌잔)	131	50.6
	기타 구성원 동거	57	22.0
합계		259	100.0
현재 직업	예	36	14.0
	아니오	222	86.0
합계		258	100.0
은퇴전 직종	화이트칼라	80	30.9
	블루칼라	179	69.1
합계		259	100.0
월평균 소득	소득 없음	62	24.0
	50만원 미만	84	32.6
	100만원 미만	55	21.3
	100만원 이상	57	22.1
합계		258	100.0
건강 상태	전혀 건강하지 않다	2	.8
	건강하지 않다	29	11.2
	보통이다	28	10.9
	건강하다	149	57.8
	매우 건강하다	50	19.4
합계		258	100.0
규칙적 운동 여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3	1.2
	대체로 불규칙적으로 운동하는 편이다	31	12.1
	보통이다	18	7.0
	대체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편이다	153	59.5
	매우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52	20.2
합계		257	100.0
영양 상태	전혀 균형적이지 않다	3	1.2
	균형적이지 않다	18	6.9
	보통이다	34	13.1
	균형적이다	135	52.1
매우 균형적이다		69	26.6
합계		259	100.0

일상 도움 필요도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3	1.2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26	10.0
	반반 정도이다	21	8.1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45	17.4
	모두 혼자 할 수 있다	164	63.3
합계		259	100.0
질병수	없음	82	31.7
	1가지	125	48.3
	2가지	39	15.1
	3가지 이상	13	5.0
합계		259	100.0

2. 남성노인 성생활 및 만족도

[표 2]는 연구대상자의 성생활 및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8.2%는 성관련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8.6%이었으며 성생활 대상자는 배우자가 72.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14.5%는 직업여성인 대상이었다. 성생활대상자의 연령층은 60대가 약 70%로서 대다수이며 성관계횟수는 한 달에 1 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약 60%는 성생활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는 약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성보조기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성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는 본인의 집으로 82.7%이었으며 나머지 다른 장소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약 55%는 성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성생활 실태

		N	%
성별 경험	예	21	8.2
	아니오	235	91.8
합계		256	100.0
성생활 유무	예	72	28.6
	아니오	180	71.4
합계		252	100.0
성관계 대상	배우자	55	72.4
	이성 친구	6	7.9
	직업여성	11	14.5
	노인기관이나 경로당 친구	4	5.3
합계		76	100.0
성관계 대상 연령	59세 이하	13	17.6
	60~69세	53	71.6
	70세 이상	8	10.8
합계		74	100.0

	기타	9	11.7
월평균 성관계 횟수	6개월에 1번 이상	10	13.0
	한 달에 1번 이상	55	71.4
	1주일에 1번 이상	3	3.9
	합계	77	100.0
성보호 기구 사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6	60.5
	약물을 사용해봤다	24	31.6
	성 보조기구를 사용해봤다	2	2.6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4	5.3
	합계	76	100.0
성관계 장소	본인의 집	62	82.7
	상대방의 집	7	9.3
	모텔	5	6.7
	기타	1	1.3
	합계	75	100.0
성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	1	1.3
	불만족	10	12.8
	보통	24	30.8
	만족	31	39.7
	매우 만족	12	15.4
	합계	78	100.0

3. 남성노인의 성생활 지속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3]은 응답자들의 성생활 지속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성생활 지속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exp(b)=0.733$). 배우자가 없는 남성노인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의 성생활 지속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exp(b)=6.230$). 최종학력 또한 남성노인의 성생활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학력이 높을수록 성생활 지속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exp(b)=1.708$).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3][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 둘만이 거주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성생활 지속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b)=8.404$). 월평균소득 역시 응답자들의 성생활 지속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즉 소득이 높을수록 성생활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b)=1.599$). 이러한 연구결과 역시 [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에 도입된 나머지 변수들 즉 직업관련 변수, 건강과 운동, 질병유무 및 영양상태 등은 남성

노인의 성생활지속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구학적 변수들만이 남성노인의 성생활지속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 사회경제적 및 건강관련 변수들은 남성 노인의 성생활지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남성 노인의 성생활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		II		III	
	b	exp(b)	b	exp(b)	b	exp(b)
연령	-.294***	.745	-.312***	.732	-.311***	.733
배우자 유무 (1=있음)	1.411*	4.100	2.134**	8.449	1.829*	6.230
최종학력	.401*	1.494	.556*	1.744	.536*	1.708
가구형태 (1=부부)	1.853**	6.376	2.282**	9.798	2.129**	8.404
현재직업 (1=있음)	.649	1.914	.587	1.798	.601	1.824
은퇴전 직종 (1=화이트)	-.750	.472	-.952	.386	-.980	.375
월평균 소득	.439**	1.551	.481**	1.617	.469**	1.599
건강상태			.516	1.675	.397	1.488
규칙적 운동여부			.028	1.028	.083	1.086
영양상태			.381	1.464	.378	1.459
일상도움 필요도			.063	1.065	.032	1.032
질병수			.493	1.638	.429	1.535
성병경험 (1=있음)					1.127	3.086
	Nagelkerke R ² =.477, $\chi^2=101.336$ ***		Nagelkerke R ² =.503, $\chi^2=107.186$ ***		Nagelkerke R ² =.513, $\chi^2=109.243$ ***	

***p<.001 **p<.01 *p<.05

4. 남성노인의 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4]는 남성 노인의 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 다중회귀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생활 횟수가 많을수록 성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beta=0.572$) 성병에 이환된 경험이 있을수록 성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beta=-0.453$). 또한 질병에 이환될수록 성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24$). 그러므로 대구지역 남성노인들은 질병이 없으며 성병에 감염되지 않고 성관계 횟수가 많을수록 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나머지 연령, 배

우자유무, 최종학력, 가구형태, 현재직업과 은퇴적 직종, 월평균소득, 건강상태, 영양상태 그리고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등과 같은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변수들은 다중회귀분석에도입된 변수들은 남성노인의 성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성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24][27]. 이러한 연구결과가 대구지역 남성노인의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4. 남성 노인의 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		II		III	
	β	t	β	t	β	t
연령	-.003	-.081	-.009	-.219	.006	.190
배우자유무 (1=있음)	.380	.897	-.027	-.057	.324	.718
최종학력	-.016	-.146	.146	1.140	-.094	-.936
가구형태 (1=부부)	-.543	-1.477	-.254	-.678	-.079	-.293
현재직업 (1=있음)	.225	.800	.261	.844	.055	.249
은퇴직종 (1=화이트)	.172	.564	-.133	-.422	-.343	-1.502
월평균소득	-.066	-.593	-.064	-.542	.081	.935
건강상태			.125	.503	.278	1.546
규칙적 운동여부			.334	2.134*	.105	.918
영양상태			.127	.675	.095	.628
일상도움 필요도			-.152	-.714	.178	1.165
질병수			-.234	-1.228	-.324	-2.340*
성병경험 (1=있음)					-.453	-5.535**
성관계대상 (1=직업여성)					.738	1.967
성관계대상 연령					-.029	-1.420
월평균 성관계횟수					.572	4.542***
보조기구 사용 (1=미사용)					-.168	-.912
성관계장소 (1=본인 집)					.265	.962
	adjusted R ² =-.047, F=.503		adjusted R ² =.036, F=1.235		adjusted R ² =.263, F=7.494***	

***p<.001 **p<.01 *p<.05

V. 맺는말

1. 요약

이 연구는 대구지역 65세 이상 남성노인 259명을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직접면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남성노인들의 성생활실태 및 성생활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약 29%는 현재 성생활을 유지한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생활의 대상자는 배우자가 72.4%로 가장 많았다. 한 달 평균 1회 정도의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약 55%는 성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남성노인 대상의 국내 연구결과들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18][25]. 그러나 외국 남성노인의 성생활만족도 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19]. 한편, 조사대상자의 8.2%가 성병 감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4.5%가 직업여성과의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생활의 지속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성생활지속 가능성이 낮으며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성생활지속 가능성이 여섯배 이상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가구 형태를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노인부부만이 한 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구가 여덟배 이상의 성생활지속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소득 역시 응답자들의 성생활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경제적 변수 및 건강관련 변수들은 대구지역 남성노인들의 성생활지속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 노인들의 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평균 성생활횟수가 응답자들의 성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질병수와 성병경험은 응답자들의 성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인구학적 변수들과 타 사회경제적변수들 그리고 건강관련 변수들은 응답자들의 성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대구지역 65세 이상 남성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생활 실태 및 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한 결과 대구지역 남성노인들의 성생활지속과 성생활만족의 실태에 있어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기존의 연구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성생활지속 유무와 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있어서는 상이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즉, 성생활지속 유무에는 경제적 및 건강관련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구지역 남성노인들의 경우 성생활지속에 현재직업유무, 은퇴전 직종, 그리고 월평균 소득과 같은 경제적 변수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운동이나 건강상태와 같은 변수들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생활만족도에는 월평균성관계횟수, 질병수, 그리고 성병이환유무 등과 같은 변수들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 그리고 건강관련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거의 매일 같이 공원으로 나와서 소일하는 노인으로서 타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건강한 편에 속하므로 건강과 성생활과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겠다. 즉, 조사대상자들의 불과 12%만이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13%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둘째, 학력과 성생활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조사대상자의 과반 수 이상이 초등학교졸업 이하의 비교적 학력이 낮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력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체면을 중요시 하고 속내를 밖으로 드러내 놓는 것을 꺼리는 대구지역 노인들의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의식과 태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대상자들 가운데 성생활을 지속하는 사람은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생활을 지속하는 사람의 72.4%는 그 대상이 배우자라고 밝히고 있다. 노인들의 성생활 지속은 그들의 생활만족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노인들의 성생활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던 인식이 바뀌어 남성노인들이 건전한 성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14.5%가 매춘을 통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8.2%는 성병에 이환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겠다.

성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가운데 성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약 55% 정도이며 성생활만족에 긍정적인 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관계횟수이며 부정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병 경험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남성노인들의 성생활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성관계파트너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성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노인들의 성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부처에서 시민교육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성생활을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성노인들의 성생활과 관련된 현안들은 장래에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타 지역에 비해 부수성이 강한 대구지역 남성들의 성생활 실태 및 성생활만족도 그리고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연구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며 연구주제가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성생활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 비록 훈련된 면담자에 의하여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면담자들의 응답의 진솔성과 신뢰성에 어느 정도의 오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표본추출의 제한점과 표본크기가 충분하지 못한 점 역시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좀 더 늘려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심층연구를 통하여 양적인 자료수집에서 밝힐 수 없는 내용을 밝혀내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찾아내는 향후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KOSIS, 2016.
- [2] 리혜근, 하규수, “일상생활요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280-292, 2012.
- [3] 오세근, “노인의 성적권리에 대한 복지 철학적 이해,” 사회복지정책, 제5권, pp.81-92, 1997.
- [4] S. J. Lee, Y. S. Lee, and Y. E. Kim, “The degree of elderly sexual desire and their attitudes towards sex,”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10, No.1, pp.1-21, 2013.
- [5] D. Ra and Y. Kim, “The impact of the elderly’s sexual life and sexual attitude on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31, pp.185-204, 2011.
- [6] 박형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성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수원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자치발전, 제71권, pp.83-101, 2001.
- [7] 김윤정,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성생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제5호, pp.133-143, 2003.
- [8] 신용선,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성생활 실태 및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9] I. B. Addis, S. K. Eeden, and C. L. WasselFyr, “Sexual activity and function in meddleaged and older women,” Obstet Gynecol, Vol.107, pp.755-764, 2006.
- [10] 한국소비자원, *지방노인의 안전한 성생활 실태 조사*, 안전보고서, pp.1-84, 2012.
- [11] 홍강의, “인간의 성 - 그 본질과 기능,” 대한의사협회지, 제43권, 제2호, pp.103-106, 2000.
- [12] 차화석, *고령화 사회 노인의 성생활 인식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3] 권명숙, *노인의 성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14] F. D. Cox, *Human intimacy: marriage, the family, and its meaning*,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 [15] 김동일, “노인과 성,” 가족과 문화, 제2권, pp.53-68, 1997.
- [16] 이윤숙, “한국인의 노인에 대한 의식구조연구,” 최신의학, 제25권, 제9호, pp.113-134, 1982.
- [17] 오진주, “노인의 성 생활경험에 대한 서술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36-251, 1999.
- [18] 김주희, 이창은, “유배우자 노인의 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20권, 제3호, pp.185-195, 2000.
- [19] S. T. Lindau, S. E. Philip, W. L. Laumann, A. O. Colm, and J. W. Linda, “A study of sexuality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357, pp.762-774, 2007(8).
- [20] 이미경, *노인부부의 성생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21] 황은희, 신수진,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제24권, 제2호, pp.183-190, 2012.
- [22] J. H. Kwon and Y. M. Lee,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ex and sexual life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8, No.2, pp.13-27, 2006.
- [23] 김명숙, 고종욱, “노인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통합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6호, pp.246-259, 2013.
- [24] 이장봉, 노인의 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5] 김태현, 한혜선 역, 노년기의 부부관계, 서울대학출판사, 1996.
- [26] 황희문, 노인의 성생활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산업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7] 김지현, 노인의 성생활 실태, 성인식 및 성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8] 김연, 유영주, “기혼남녀의 성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권, pp.1-18, 2002.
- [29] J. D. Delamater and M. Sill, “Sexual desire in the later life,” Journal of Sex Research, Vol.42, No.2, pp.138-149, 2005.
- [30] 김한곤, 이희성, “한국노인의 성생활만족도와 관련 요인들,” 인문연구, 제69권, pp.579-604, 2013.

저 자 소 개

김 한 곤(Han-Gon Kim)

정회원



- 1981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82년 12월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hico,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1985년 12월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사회학과(사회학박사)

<관심분야> : 인구학, 노년학, 연구방법론